

『일수의 탄생』 한 학기 한 책 읽기



‘참다운 나를 찾고 싶을 그때, 비로소 진짜 탄생하는 인생’

낳을 탄, 생명 생. 탄생이란 말은 ‘생명을 낳다’는 한자말입니다. 생명은 탄생되는 걸까요? 탄생하는 걸까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만을 탄생이라고 한다면 ‘탄생되다’가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이라면 우리의 탄생은 ‘탄생하다’가 맞지 않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탄생의 순간이라면 우리의 ‘진짜’ 생일은 오래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수의 탄생』은 단순히 일수의 출생과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일수의 ‘진짜’ 탄생 이야기입니다. 부모나 사회가 보여주는 성공의 모습과 부모의 욕망이 투영된 장래희망이 자신의 모습인 양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면 또 다른 ‘일수’가 아닐까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탄생과 성장은 시작된다는 것을, ‘백일수 씨’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동화! 『일수의 탄생』 속 ‘백일수 씨’를 만나봅시다.

▶ 책 읽어 주기 전 알아 둘 것!

한국아동문학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인 유은실은 2004년 《창비어린이》에 「내 이름은 백석」으로 등단하여 많은 장단편과 청소년 소설을 출간하였습니다. 『내 머리에 햇살 냄새』, 『만국기 소년』이나 『멀쩡한 이유정』 같은 단편동화집부터 『나도 편식할거야』와 같은 저학년동화, 『변두리』와 같은 청소년소설까지 작품세계가 넓은 작가입니다. 또한 독특한 자신만의 동화세계를 구축하여 차분하면서도 웃음이 있는 문장과 해학과 풍자를 통해 깊이 있는 주제를 잘 표현하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수의 탄생』은 이런 유은실 작가의 매력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가 사는 마을은 예로부터 물 맑고 인심이 좋았다는 얘기가, 구청 홍보 자료에만 있었죠. 마을 개천은 공장 폐수로 오염이 되었고, 인심은 개천 물만큼이나 더러웠어요.

- 『일수의 탄생』, 9쪽

이야기의 도입부터 웃음이 터져 나오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씁쓸한 무언가가 깔려 있는 풍자의 문체가 이 작품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꼬치꼬치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짚어 가며 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쉽게 읽히면서도 중간중간에 생각할 게 많은 작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글의 분량은 중학년 동화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되도록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 읽는다면 풍자의 맛과 의미를 충분히 즐기면서 작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웃을 든 일수, 그리고 생일을 의미하는 초 -표지 보며 이야기 초대하기

책을 읽기 전에 나누는 이야기는 본격적인 이야기로의 도입을 도와주거나 흥미를 갖게 하는 이야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럴 때 표지 속 그림이나 책 제목은 아주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지요. 표지 속 남자 아이를 찬찬히 살펴볼까요? 초가



하나 빛나는 머리 위에 생일케이크가 올려 있고, 한 손에는 붓을 쥐고 있습니다. 그 붓으로 쓴 것 같은 제목도 보이고, 족자안의 인물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새마을 문구’의 그림도 보입니다. 꼼꼼하게 보다보면 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재, 또는 인물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표지 그림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웃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들어있는 두 개의 족자 사이에 있는 붓을 자세히 보면 사람얼굴이어서(명필 서예학원 원장이겠지요?) 숨은 그림을 찾는 재미도 줍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남자아이의 얼굴입니다. 한 일자의 입 모양과 살짝 짙은 눈썹의 얼굴은 표정과 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없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표정인지 물으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제목인 ‘일수의 탄생’ 속 ‘일수’라는 이름의 뜻을 짐작하게 해보는 것도 본격적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책을 읽으면서

인물의 말투와 서술 문장의 숨겨진 의도 짐작하며 읽기

일수는 엄마, 아빠가 15년 만에 낳은 귀한 자식입니다. 아빠의 황금 똥 태몽을 꾸고 생긴 일수는 행운의 7일이 두 번이나 있는 7월 7일에 태어났지요. 엄마는 귀한 아들을 일등으로 키우기 위해 이름도 ‘일등 할 때 일(一), 수재할 때 수(秀)를 합친 것으로’ 하여 ‘백일수’라 짓습니다. 하지만 일수는 일등은커녕 모든 것에 딱 중간을 하며, “일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칭찬할 것도 야단칠 것도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게 된 서예부에 들어간 일수는 붓글씨를 시작하는데, 엄마의 욕심은 일수를 서예 학원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수의 인생은 전혀 풀리지 않고,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 돈방석에 앉혀줄 거라는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남의 집 가훈을 써주며 근근이 살아가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일수는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작가는 왜 이렇게 일수를 그려야만 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 내내 강력한 힘으로 일수의 생각과 욕망을 억누르는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일수의 엄마입니다. 엄마는 일수가 “배고파”라는 말을 하기 전에 밥을 먼저 주고, 일수의 생일잔치도 거하게 해주며 일수를 살피고 또 살핍니다. 엄마는 ‘적당히’ 말고 ‘잘’ 키우고 싶었고 그게 지나쳐 일수를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과 선택의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아이로 키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엄마의 욕망을 대신 채워줄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태어난 앤데! 7월 7일에 애를 아무나 낳는 줄 알아?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잘하는 게 없다고? 입이 떡 벌어지게 성공해서 날 돈방석에 앉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어머니는 통지표를 던졌어요. 문구점 구속에 웅크리고 있던 일수는 눈물을 찔끔 흘렸죠. 마음이 통지표처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같았어요. 어머니를 실망시켜서 슬펐어요.

- 『일수의 탄생』, 32-33쪽

처음에는 마냥 재밌다고 생각하다가 점차 선택조차 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도 존재감이 없게 된 일수의 모습을 보면 웃음대신 안타까움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엄마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일수는 “모르겠어요.”로 말하다가 엄마가 “일수야, 학교에 가서는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뭘 물으면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네 생각을 정확하게! 그냥 ‘몰라요’하면 마분 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모르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보다도 더 불분명한 ‘모르는 것 같아요’라니! 일수의 이런 말투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일수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일수의 우유부단한 성격과 답답하고 소심한 성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수의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이 말은 우리의 고민과도 연결된 말일지도 모릅니다. 독자들은 일수가 대답하는 순간마다 ‘나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대답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수가 내내 꿈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아이였다면 서른이 넘어도 성장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일수는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은 서예학원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넓은 세계로의 진입에 바탕이 됩니다. 어떤 지점에서 일수가 자신의 내면의 바람을 느끼고 있는지,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고 일수의 변화된 모습을 찾는다면 훨씬 더 작품을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겹받침도 잘 쓰면 좋겠다.’

일수에게 꿈이 생겼어요. 일수는 겹받침을 잘 쓸 때 까지 서예를 하고 싶어졌지요. 한 여름 더위도 일수의 꿈을 꺾지 못했어요.

- 『일수의 탄생』, 49쪽

6학년이 된 일수는 여전히 있는 듯 없는 듯했어요. 하지만 특별활동부를 정할 때는 눈에 띄는 아이였죠. 서예부에 혼자 손을 번쩍 들었으니까요.

작년과 달리, 일수는 떠들었어요. 일수에게 먼저 말을 거는 친구, 백일석이 있었으니까요.

- 『일수의 탄생』, 60쪽



그림 © 서현

서예부에서 출발하여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욕구를 느끼게 된 일수는 이제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서른이 넘어 가혼을 쓰러 찾아온 아이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지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서예 학원 원장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네 좌우명은 뭐가?”(중략)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좌우명입니다.”(중략)

“자네 쓸모는 누가 정하지?”(중략)

오래전 그날처럼 눈빛이 몸을 뚫고 들어와 구멍을 뚫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일수 마음이, 오래전 그날처럼 일수도 모르게 스르르 흘러나왔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 『일수의 탄생』, 76쪽

“네 쓸모는 누가 정하지?”

다리가 저릴 때까지, 일수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았어요. 국민, 시민, 예비군,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 가혼업자, 일석 반점 단골, 문구점 아저씨인 일수 씨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일수 있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죠.

- 『일수의 탄생』, 117쪽

“일수야, 백일수…… 전에는 모든 게 분명했는데, 요즘은 분명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 고민은 사춘기 때 하는 거래. 서른이 넘었는데 이제 사춘기란 말이야?”

- 『일수의 탄생』, 118쪽

그리고 일수 씨와 일석 씨는 진짜 자신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고 집을 떠납니다. 엄마가 정해준 모습으로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서, 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로. 아주 더디고, 대단할 게 없지만 진짜 ‘일수의 탄생’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 책을 읽고 난 뒤

아이들과 함께 쓰는 열세 살 자서전, “○○이의 탄생”

유은실 작가의 동화에는 특별하거나 뛰어난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등장하는 멀쩡하지 않은 주인공은 그래서 평범한 아이들에게 ‘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고, ‘인생 별거 아니다’라고 했던 일수 아빠의 말이 유은실 작가가 해주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별거 아니니까 포기해, 대충 해’와는 다른 말입니다. 좋아하는 특별활동 부서를 고르지 못하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좌우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수와 우리 아이들은 다르니까요. 서른 살에야 비로소 했던 고민은 ‘일석 씨’의 말처럼 ‘사춘기 때 하는 고민’이고, 우리 아이들이 현재 겪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 기억이 나는 일들, 특별했던 일들, 소중한 순간, 의미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담아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의 진짜 탄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 봐요>



유은실 작가의 매력에 푹 빠지고 싶다면 다른 작품을 찾아 읽어보면 좋습니다. 『드림 하우스』, 『마지막 이벤트』,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등 장편동화와 『만국기 소년』, 『멀쩡한 이유정』과 같은 단편 동화집을 읽으며 재미뿐만 아니라 작가의 따스한 위로도 함께 건네 받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직업이지만 ‘주방장’이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끈질기면서도 유쾌하게 선언하는 이야기인 『주병국 주방장』을 통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동화인 『내가 나인 것』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험 이야기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상과제를 가진 사춘기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이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문득 임길택 시인의 “나 혼자 자라겠어

요”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길러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
/ 모두 시시해요… 나는/ 아무도 나를/기르지 못하게 하겠어요/나는 나 혼자 자라겠
어요“라는 단단한 선언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